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Feature

패키지여행의 기본
중국 상하이-항저우-쑤저우
상품 집중분석

■ 글·사진/박상현 기자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패키지여행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동남아시아는 이제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었다. 밀려드는 공산품과 농산물처럼 중국 각지의 여행지가 한국인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숙박 등 열악한 관광 인프라 때문에 개별여행이 어려운 중국을 여행하려면 선택은 패키지뿐이다. 그중에서도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 상품은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항공과 숙박, 식사, 현지 교통, 가이드가 포함된 금액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승지를 묶었기 때문이다. '특기'라는 간판을 내세운 모두투어의 상하이-항저우-쑤저우 3박 4일 패키지여행에 동참했다.

현재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 중 3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은 상하이-항저우-쑤저우 상품과 베이징-만리장성 상품, 오직 두 가지뿐이다. 왕년에 명성을 떨쳤던 태국도 지금은 50만 원을 훨씬 넘는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따듯한 나라에 가는 것은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한편 이미 개별여행에 주도권을 내준 일본 여행 시장에서는 패키지여행 상품이 온천이 딸린 료칸(旅館)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예전처럼 도쿄나 오사카를 거점으로 근교를 돌아보는 상품은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인 중국은 패키지여행의 천국이다. 상하이와 베이징 외에도 하얼빈(哈爾濱), 칭다오(靑島), 백두산, 황산(黃山), 장자지에(張家界), 구이린(桂林), 주자이거우(九寨溝), 쿤밍(昆明), 시안(西安), 하이난(海南) 등이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늘어나면서 여행 상품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상하이 패키지여행 상품은 거의 대부분 항저우, 쑤저우와 연계된다. 세 지역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삼각형 형태로 배치해 있는데다 볼거리도 풍부한 탓이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마천루들이 경쟁하듯 치솟아 있는 경관이 인상적이다. 흔히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홍콩을 꼽지만, 상하이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 세련된 레스토랑과 바, 쇼핑 명소가 많아서 젊은 여성들이 개별여행지로도 많이 찾는다.



‘동양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쑤저우와 서호(西湖)가 있는 항저우는 오래 전부터 번성했던 도시들이다. 수나라 때 대운하가 개통된 뒤 1000년 넘게 ‘하늘에는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天上天堂 地下蘇杭)’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경치가 좋다는 얘기다.

모두투어의 ‘도전 최저가, 상하이-쑤저우-항저우 4일’ 상품은 싸다. 가격이 26만9000원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공항세와 유류할증료까지 합친 금액이다. 비자 발급 비용과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별도로 내더라도 3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금액은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보다 저렴한 것이다.

파격적인 가격을 보고 자연스레 쇼핑과 옵션투어(선택 관광) 강요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일정표에는 상하이의 동방명주와 항저우의 송성가무소가 선택 관광으로 명시돼 있고, 쇼핑은 모두 5차례라고 적혀 있었다. 1월 30일 모두투어의 ‘도전 최저가, 상하이-쑤저우-항저우 4일’ 상품에 동행했다.

패키지상품 예약 과정

여행을 1주일 남겨둔 1월 23일 모두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대기 예약’ 상태였으나 곧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을 하고 2시간쯤 뒤에 모두투어 직원이 전화를 걸어 중국 비자와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다음날 모두투어 사무실에 찾아가 여권을 건네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직원은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므로 고추장이나 김을 준비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따로 챙겨갈 것은 없다고 했다.

출발 하루 전인 1월 29일 오후 2시쯤, 모두투어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중국 남부 지방에 폭설이 내려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행을 떠나겠냐고 물어왔다.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 공항에서 비행기 운항이 중단돼, 장자지에로 갔던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였다. 직원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눈이 많이 오면 상하이에서 항저우나 쑤저우로 가는 도로가 폐쇄될 수 있다”며 “항저우와 쑤저우에 가지 못하면 상하이 근교 관광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일행들이 모두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확정된 일정표를 이메일로 보내준 뒤 여권과 항공권은 인천공항 A카운터와 B카운터 사이에서 수령하라고 알려줬다. 가능하면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상담 과정은 한 명의 직원과 진행됐다. 비교적 친절했고,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것 같았다. 다만 개인 비자 발급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외에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었다.

《도전 최저가, 상하이-항저우-쑤저우 4일(상하이 서커스 포함)》 일정

날짜	시간	장소	일정
1일	12:15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집결
	15:15		아시아나항공 OZ 367편으로 인천공항 출발
	16:15	상하이공항 상하이	상하이 푸둥공항 도착 와탄 지구 동방명주 전망대(관광옵션1) 항저우로 이동
		항저우	호텔 투숙 및 휴식
		식사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2일		항저우	조식 후 서호, 영은사, 육회탑, 용정차 농원 관광
			송성가무소 관람(옵션2) 쑤저우로 이동
		쑤저우	호텔 투숙 및 휴식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동파육, 석식: 현지식
3일		쑤저우	조식 후 유원, 한산사, 호구탑 관광
			상하이로 이동
		상하이	예원 관광, 상하이 서커스 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상하이요리
4일		상하이	조식 후 루쉰공원 관광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이동
	12:05	상하이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도착
	15:00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OZ 362편으로 상하이 푸둥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식

가격 269,000원(현지 투어 합류 시 120,000원)

인원 최소 8인 이상 시 출발, 인솔자 동반하지 않음

상품 특전 서호 유람선, 상하이 서커스, 예원 및 상하이 옛 거리, 유원, 발미사저택 별도

쇼핑 리스트 상하이(진주, 항저우(한약, 차), 쑤저우(실크, 리렉스)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권

- 인천 공항세(17,000원), 관광진흥기금(10,000원), 전쟁보험료, 중국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50달러)
 - 전 일정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옵셔널투어 제외) - 1억 원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 비용(21,000원) - 생수, 음료수 등 개인 경비
 - 가이드, 기사 팀(현지 직불 40달러) - 유류할증료 인상분(39,000원)

Day1; 1월 30일, 인천 → 상하이 → 항저우

여행 첫날 일정은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이동, 잠간의 시내 관광을 마친 뒤 항저우로 들어가는 것이다. 관광은 상하이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외탄(外灘) 지구와 첫 번째 옵셔널투어인 동방명주뿐이다.

여권, 항공권 수령 중국 비자 발급 때문에 여권을 공항에서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 A카운터와 B카운터 사이에는 대형 여행사의 직원들이 대기해 있다. 처음 공항에 간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다. 출발 2시간 20분 전인 오후 12시 50분, 10번 모두투어 데스크로 가서 행선지와 이름을 알려주고 여권, 항공권, 일정표를 받았다. 항공권 발급은 C카운터 19~36번에서 하라고 알려주었다. 그 사이에 다른 직원이 트렁크에 커다란 ‘모두투어’ 스티커를 붙였다.

직원에게 환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일정표에 옵셔널투어 비용을 비롯해 가이드와 기사 팀, 발마사지 팀이 모두 달러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달러로 바꿔가는 것이 좋다”며 “중국 돈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가이드에게 환전을 부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중국 돈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길거리에서 주전부리를 구입할 때를 제외하면 달러나 원화도 통용됐다.



인천공항 출발, 상하이 도착 인솔자가 없으므로 비행기 탑승은 혼자서 해야 했다. 설을 앞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 줄이 길었다. 하지만 수속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마일리지는 80%인 424마일이 적립됐다.

아시아나항공의 OZ 367편은 예정된 시간에 이륙했다. 오후 4시 20분쯤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았다. 출국장을 나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모두 투어 피켓을 발견하고 인파를 빠져나와 찾아갔다. 하지만 모두투어 피켓을 든 여러 사람 중 누가 가이드인지 알 수 없어서 잠자코 있었다. 혼잡스러운 곳에서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투어를 통해 이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은 3~4개의 팀으로 나뉘었고, ‘도전 최저가’ 여행팀은 모두 16명이었다. 5분가량 지나서 인원을 확인하고 버스로 이동했다.

유일한 교통수단, 버스 공항에 주차돼 있는 버스는 3박 4일간 바뀌지 않았다. 29인승이었는데, 일행이 16명이었으므로 공간은 넉넉한 편이었다. 하지만 차내가 매우 추웠다. 처음에 탑승하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난방이 잘 되지 않았다. 가이드는 “중국 자동차는 시동을 끄면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추울 수 있지만, 달리다 보면 따뜻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여행자들은 “너무 춥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하이 관광, 급하게 일정을 바꾸다 푸둥공항에서 상하이 시내 외탄 지구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남성 가이드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뒤 푸둥공항과 상하이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외탄 지구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으로 야경을 감상했다. 왼편으로는 100여 년 전에 건설된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황푸강(黃浦江) 건너 오른쪽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본래 일정은 농방명주의 전망대에 올라가 상하이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었으나, 일행 중 누군가가 “밤에 올라가서 뭐 볼 게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이드는 “어차피 3일째 돌아오므로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동방명주 대신 상하이 서커스로 일정을 바꾸었다. 그 대신 마지막 날 동방명주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옵션투어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서커스에는 뒤늦게 도착했다. 서커스는 접시돌리기, 자전거 곡예 등 9가지 묘기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식사 점심은 기내식, 저녁은 외탄 지구 근처의 중국 식당에서 제공한 중식이었다. 저녁은 8명씩 두 테이블로 나뉘어 먹었는데 대체로 괜찮다는 평가였으나, 다소 기름져서 많이 먹는 사람은 없었다.

가이드의 압박이 시작되다 일정이 동방명주 전망대 야경 감상에서 상하이 서커스 관람으로 바뀌자, 가이드는 셋째 날 상하이에 돌아오면 동방명주에 올라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사실 옵션투어는 말 그대로 보고 싶은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강제나 마찬가지였다. 가이드는 농담조로 “돈을 뺏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상하이에 돌아와서는 일정에 있는 예원(豫園) 대신 상하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이 어떠냐, 고 권유했는데 이는 예정에 없는 옵션투어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는 예원은 쑤저우에 있는 유원(留園)보다 볼 것도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하이 역사박물관을 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역사박물관에 갈 경우, 추가 비용은 당연히 여행자의 몫이라고 했다.

호텔 : 금무상무(金茂商務) 호텔

일정표에는 서계연조 호텔로 적혀 있었으나 다른 호텔에 투숙했다. 별이 3.5개로 적혀 있었는데, 3성이라고 하기에 도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했다. 항저우 시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좋았으나, 결정적으로 난방이 잘 되지 않았다. 한밤중에는 온풍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불을 덮어도 춥게 느껴질 정도였다. 텔레비전 채널 역시 많은 편이었으나, 모두 중국어 방송뿐이었다. 식수가 없다는 것도 불편했다. 객실은 넓었고 슬리퍼, 커피포트, 헤어드라이어 등은 갖춰져 있었다.

Day2; 1월 31일, 항저우 → 쑤저우

둘째 날은 항저우에 머물다가 쑤저우로 넘어가는 일정이다. 관광지는 절경으로 유명한 서호, 중국 선종 10대 고찰에 든다는 영은사(靈隱寺), 항저우 시내와 강이 보이는 육화탑(六和塔), 항저우 특산품인 용정차(龍井茶) 농원에 들르고 특전으로 동파육을 맛볼 계획이다.

항저우 관광,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 호텔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서호까지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이다. 중국인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호수로 도시 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서호’라 불린다. 서호 주변에는 아름다운 카페와 상점이 많은데, 차에 타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아쉽다. 개별여행으로 왔다면 천천히 걸어 다니며 흥취를 느낄 만한 곳이다.

버스에서 내려 유람선을 타는 곳까지 걸어갔다. 날씨는 무척 흐려서 호수도, 산도, 하늘도 모두 잿빛으로 뿌옇게 보였다. 가이드는 “서호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가장 예쁘고, 맑은 날은 별로”라며 사람들을 위로했다. 또 항저우는 본래 구름 낀 날이 많다고 했다. 유람선 여행은 40분간 지속됐다.





영은사는 항저우에서는 손꼽히는 관광지이자 화동 지방의 불교 신자들이 최고로 치는 사찰이다. 나무가 우거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운림선사(雲林禪寺)’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경내에는 다양한 건물과 불상이 위치해 있다. 향에 불을 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소원을 빈 후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항저우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었다.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육화담은 하늘 높이 육중하게 뻗어있는 담이다. 주위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둘러보는 데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쇼핑, 4곳을 들르다 둘째 날은 ‘쇼핑의 날’이었다. 일정에는 관광으로 분류돼 있는 용정차 농원부터 모조 명품, 라텍스 상점, 한약방 등 4곳을 방문했다. 쇼핑에 소비한 시간만 3시간 5분. 쇼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용정차 농원으로 향하는 도중 가이드는 “물건은 사지 않아도 좋으니, 참가만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가짜는 없고, 모두투어를 통해 환불할 수도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여러 번 말했다. 차 농원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와서 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품목은 용정차와 국화차. 꼭꼭 담아줄뿐더러 두 통을 사면 한 통은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다. 호응도는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차를 구입했다.

두 번째는 모조 명품 상점. ‘짜통의 천국’이라는 답답지 않은 별명답게 각종 브랜드의 모조품을 파는 상점이었다. 가방, 지갑이 많았으나 사는 관광객은 1명밖에 없었다.

동남아시아 패키지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라텍스 상점에도 들어갔다. 가이드는 줄곧 “가이드 눈치 보지 말고, 구경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도 천연 라텍스와 합성 라텍스를 비교하면서 천연 라텍스에 대한 예찬이 계속됐다. 주소를 알려주면 한국까지 부쳐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했다.

마지막은 항저우 변두리에 있는 한약방이었다. 의사 3~4명이 들어와 희망자에 한해 진맥을 하고, 건강 진단을 해줬다.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청년들이 들어와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옵선투어 점심식사 후 가이드가 버스에서 돈을 걸어야겠다고 공표했다. 송성가무쇼 30달러, 동방 명주 전망대 20달러, 가이드와 기사 팁 40달러, 발마사지 팁 5달러 등 모두 95달러였다. 대부분 95달러를 냈지만, 송성가무쇼를 보지 않겠다는 사람이 4명 있었다. 결국 2명은 가이드의 설득을 통해 보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2명은 전에 봤었다는 이유로 관람을 포기했다. 말만 선택일 뿐, 의무나 다를 바 없었다.

첫 번째 옵선투어인 송성가무쇼는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전설을 연극과 현대 무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국 사람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았다. 쇼는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 실내라고는 해도 추웠다. 마지막 부분에는 동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 춤을 보여줬다.

식사 금무상무 호텔의 조식 뷔페는 먹을 것이 없다. 볶음밥이나 빵을 제외하면 입에 맞는 메뉴가 없다. 레스토랑도 매우 지저분했다. 중식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동파육이 나왔다. 동파육은 소동파(蘇東坡)가 즐겨 먹었다는 돼지고기 요리이다. 8명이 앉는 테이블에 밥, 수프, 10가지의 반찬이 달려 나왔으며,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 저녁식사는 삼겹살이었는데, 고기는 냉동육이어서 그다지 맛있지 않았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거나 고기를 추가로 주문하려고 해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종업원이 한 명뿐이어서 불편했다.

호텔 일정표에 있는 호스톤(Hostun) 호텔에 묵었다. 객실은 첫째 날 호텔보다 훨씬 따뜻했고, 깨끗했다.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리했으나 호텔 도착 시간이 워낙 늦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TV 채널은 40여 개로 CNN, BBC, NHK 등 외국 채널도 나왔다. 시설은 첫날 호텔과 비슷했다.

Day3; 2월 1일, 쑤저우 → 상하이

오전은 쑤저우, 오후는 상하이에서 관광과 쇼핑을 겸한다. 쑤저우에서는 당대의 시인이 거처했다는 한산사(寒山寺), 중국 4대 정원 중 하나인 유원, 중국에서 가장 오랜 벽돌탑이 있다는 호구(虎丘)를 둘러본다. 상하이에서는 예원 구경과 상하이 서커스 관람이 예정돼 있었으나, 첫째 날의 일정 변경으로 서커스 대신 동방명주에 오른다. 일과를 마치면 발마사지를 받는다.

쑤저우 관광, 주마간산하듯 훑어보다 가이드는 전날부터 셋째 날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8시 15분께 호텔을 떠나 8시 40분에 한산사에 도착했다. 규모가 작아서 구경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이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기보다 빨리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유원에는 눈이 내려 분위기가 더욱 호젓했다. 이름처럼 머무르고(留) 싶어지는 정원으로 입구는 작지만, 정원 내부는 넓다. 누각이 화려한 동부, 울망줄망한 수석이 모여 있는 서부, 대나무가 뻗어 있는 북부 등 공간에 따라 특징이 달랐다. 연못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다만 쑤저우를 대표하는 또 다른 정원인 졸정원(拙政園)은 일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사실 지명도에서는 유원보다 졸정원이 앞선다. 가이드는 유원 대신 졸정원을 구경하는 상품도 있다고 했다.



쑤저우의 마지막 관광지인 호구이다. 지대가 평평한 쑤저우에서 산처럼 솟아 있는 언덕이다. 꼭대기에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벽돌탑이 서 있다. 호텔을 나서 세 곳을 둘러보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지나간 느낌이었다.

상하이 관광, 눈을 만나다 점심때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항저우와 쑤저우를 오가는 고속도로는 운행이 중단됐다. 예약 과정에서 상담 직원이 우려했던 대로 일부 패키지여행 팀들은 현지에서 일정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쑤저우에서 상하이 동방명주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폭설 때문에 2시간 40분이 소요됐다. 더욱 큰 문제는 동방명주 전망대에 올라가도 눈발이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다. 일정을 바꾼 것이 특이 아니라 실이 된 셈이다. 결국 가이드는 옵션투어 비용(20달러)으로 동방명주 전망대와 동방명주 1층에 있는 상하이 역사박물관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했다. 상하이 역사박물관은 본래 일정에 없었다.

진주 솅에 관광객을 데려가야 하는 가이드는 동방명주에서 짜증 섞인 말투로 사람들을 재촉했다. 물론 전망대에서 바라본 상하이 백지나 마찬가지로였지만, 기왕 올라왔다면 더 머무르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상하이 역사박물관에서도 30분 안에 돌아볼 것을 강요했다.

서울에 인사동이 있다면, 상하이에는 예원이 있다. 예원은 일정에 들어가 있었으나 갔을 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상점들도 대부분 철수하는 분위기였다. 이곳에서도 가이드가 허락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실크와 진주 쇼핑 쑤저우에서는 실크, 상하이에서는 진주 솅을 들렀다. 두 곳에서 배회했던 시간은 모두 2시간 30분. 관광지에서는 채근하던 가이드가 상점에서는 모습을 감추거나 여유로웠다. 지루해진 관광객들이 “언제 출발하냐”며 가볍게 항의하기도 했다.

실크 상점에서는 실크 옷을 입은 여성들의 패션쇼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을 보여줬다. 상품은 명주 이불과 베개, 실크로 제작한 의류 등이었다. 진주 상점에서 다루는 품목은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거의 50대 이상이었고, 젊은이들은 별반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식사 조식 뷔페 레스토랑은 전날보다 깨끗했고, 음식도 다양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볶음밥을 먹으려 했으나, 이미 식어서 기름의 느끼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중식과 석식은 둘째 날처럼 맛있는 편이었다.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없었다. 호텔 마지막 밤은 화정 그랜드 호텔에서 숙박했다. 일정표에 나와 있는 호텔이었다. 호텔 3곳 중 객실은 가장 좋았지만,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다.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생수 2병이 있고, 맥주와 음료수 등이 들어 있는 미니바도 비치돼 있었다. 욕실도 가장 청결했다. 다만 밤에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렸으나 엘리베이터를 1기밖에 가동하지 않아서, 객실까지 올라가는 데 10분 이상이 걸렸다. TV 채널은 30여 개 정도이나, 대부분 중국어 방송이다.

Day4; 2월 2일, 상하이 → 인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가볼 곳은 루쉰공원(魯迅公園)뿐이다. 루쉰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폭탄을 던진 곳이다. 루쉰공원에서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이동, 비행기에 탑승하면 여행은 막을 내린다.

루쉰공원, 눈으로 폐쇄되다 전날부터 내린 눈은 4일째에도 그치지 않았다. 땅에 내린 눈은 쌓이지 않고, 녹아서 거리가 질퍽했다. 호텔에서 루쉰공원까지는 대략 1시간. 평소에 눈이 내리지 않는 도시여서 서둘러 길을 나섰다. 루쉰공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와 함께 상하이에 남아 있는 한국 관련 명소이지만, 상하이 사람들에게는 휴식 장소이다. 하지만 루쉰공원은 문이 닫혀 있었다. 가이드는 “눈이 쌓여서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며 “자칫 연못 위를 걸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개방 여부를 알아보았더라면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가까스로 공항에 다다르다 상하이 푸둥공항은 서울 인천공항처럼 시내와 멀찍이 떨어져 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은 오후 12시 5분이었는데, 루쉰공원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했다. 평소라면 시간이 넉넉했겠지만, 이 날은 눈이 많이 내려 정체가 심했다. 2시간 20분이 지나 오전 10시 50분이 돼서야 공항에 닿았다. 가이드는 미리 여권과 항공권을 걸어서 최대한 빨리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귀국편, 4시간 지연 탑승 수속을 끝냈으나,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서 “상하이 공항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있어서 OZ 362편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가이드는 조금 수속하는 곳까지 배웅했다. 기다리는 것 이외는 바빠서 없었다. 결국 오후 1시 50분에 탑

다른 활주기 시간은 지각시 배정했다. 기념품은 첫 비행은 구입이 없었다. 결국 오후 4시 30분에 탑승했고, 이륙은 오후 3시 50분에 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예정보다 정확히 4시간 늦은 오후 7시였다.

식사 호텔 조식 뷔페는 항저우나 쑤저우보다 종류가 많고 괜찮은 편이었다. 즉석에서 달걀 프라이를 해주기도 하고 야채, 육류, 밥도 구색을 갖췄다. 레스토랑도 밝고 깨끗했다. 중식은 기내식이었으나, 출발이 늦어져 공항에서 사 먹어야 했다. 가격은 상하이 시내보다 훨씬 비쌌다.

Repere's Opinion (★★★★★ 만점)

일	관광	쇼핑
1일	1시간 45분	-
2일	4시간 10분	3시간 5분
3일	2시간 30분	2시간 35분
4일	-	-
합계	8시간 25분	5시간 40분

상품 가격	269,000원
유류할증료 인상분	39,000원
비자 발급 비용	21,000원
가이드 및 기사 팁	40달러
옵션 비용	50달러
발마사지 팁	5달러
2일째 한약방 경락 마사지	3,000원
2일째 음료수, 간식	7.8위안
3일째 음료수	5위안
4일째 점심 식사	18위안
총 비용	약 426,000원

1 예약 과정 ★★★★★ 인터넷 예약 뒤 연락, 비자 발급 과정, 결제 등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폭설로 인해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취소 여부를 확인한 점도 좋았다. 다만 준비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떠났을 당시, 상하이는 무척 추웠다. 관광객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상하이의 추위'였다.

2 직원 친절도 ★★★★★ 상담 직원과 인천공항에서 만난 직원 모두 친절함 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심층적인 평가는 어렵다.

3 항공기 및 항공 ★★★★★ 국적이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솔자가 없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돌아올 때도 상하이 푸둥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안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출발 정보를 공지했다. 마일리지는 단체 항공권 규

약대로 80%가 적립됐다.

4 가이드 ★★★★★ 중국에서 한국인을 안내하는 사람은 대부분 조선족이다. 이번 여행에 나온 가이드 역시 상하이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는 조선족이었다. 명소를 설명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열의를 갖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쇼핑은 강요하지 않았으나, 옵션투어는 강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고, 그저 '일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3일째 일정이 바뀌자 진주 습에 가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렀다.

5 현지 교통수단 ★★ 푸둥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오기까지 한대의 차량으로 움직였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추웠다. 차내에서 점퍼를 벗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6 호텔 ★★★★★ 일정표에는 3.5성(★★★★☆)으로 돼 있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첫날 묵었던 금무상무 호텔은 객실이 매우 추워서, 중년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항저우의 호스턴 호텔과 상하이의 화정 그랜드 호텔은 한국의 모텔 수준과 비슷했다. 객실에는 TV와 탁자 등 간단한 집기만 놓여 있었다. 슬리퍼는 모두 준비돼 있었지만, 금무상무 호텔과 호스턴 호텔에는 식수가 없었다.

7 식사 ★★★★★ 조식을 제외하면 음식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중식과 석식은 원탁 테이블에 8명이 앉아서 밥과 반찬을 덜어먹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중국음식이어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느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침에 먹을 만한 간단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8 일정 ★★ 저렴한 패키지여행에서 쇼핑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이를 동안 6곳을 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광 시간이 줄어들었다. 쑤저우에서는 관광에 투자한 시간이 고작 2시간 30분이었다.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빽빽해서 호텔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되기 일쑤였다. 번화가를 걸어본다든가, 다른 곳을 방문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2가지이다. 사람들은 송성가무소보다 동방명주에 관심이 더 많았다. 가이드는 옵션투어를 추가하기 위해 첫날 '상하이 역사박물관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상하이 역사박물관 입장 시 추가로 요구한 금액은 1만 원이었다.

10 쇼핑 ★★★ 용정차, 모조 명품, 라텍스, 한약, 실크, 진주 등 상점 6곳을 돌았다. 모조 명품을 제외하면 모두 '진짜'만을 판다고 강조하며 가짜와의 구별법을 설명했다.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개 50대 이상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지 않았다.

11 볼거리 ★★★ 사실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는 볼거리가 매우 풍부한 곳들이다. 하지만 이 상품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둘러보았다. '운하와 정원의 도시'인 쑤저우에서는 본 정원은 유원뿐이었고, 상하이에서도 제대로 구경한 것은 동방명주밖에 없었다.

12 나이트라이프 ★ 호텔에 도착한 뒤에는 특별히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호텔 주위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늦은 시간이어서 외출하기도 어려웠다.

13 가격 ★★★★★ 여러 면에서 불만족스러웠지만, 가격에 비해 상품 자체는 훌륭한 편이었다. 본래 가격에 옵션투어 비용을 합쳐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옵션투어 비용을 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싶다. 가이드는 "상하이 상품의 가격 차이는 숙소에 있다"며 "식사를 포함해 다른 일정은 거의 같다"고 했다.

중국 상하이-쑤저우-항저우의 다른 상품은?

모두투어 내에서 '도전 최저가, 상하이-항저우-쑤저우' 상품과 다른 상품을 비교해 보면 일정은 거의 같다. 항공사가 다르거나 숙소가 업그레이드되고, 옵션투어 비용이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뿐이다. 항저우에서는 똑같이 서호, 영은사, 육화탑을 둘러보고 쑤저우에서는 유원 대신 즐정원을 구경한다. 송성가무소, 상하이 서커스 관람, 발마사지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쇼핑 품목도 대동소이하다.

한편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대형 여행사들 역시 20만~30만 원대의 저렴한 상하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나투어의 24만9000원짜리 상하이-항저우-쑤저우 5일 상품 역시 도전 최저가 상하이-항저우-쑤저우와 비슷하다. 비자 발급 비용과 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추가로 내야 하고, 옵션투어는 동방명주와 송성가무소이다. 특전도 동파육으로 같고, 쇼핑도 진주, 실크, 차, 라텍스 등 4가지이다. 다만 숙소가 다르고 일정에 다소 여유가 있을 뿐이다.

현재 상하이 패키지상품은 일정이 거의 정형화돼 있다. 관광지, 쇼핑 품목이 여행사를 막론하고 80% 가까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참가했던 사람은 패키지여행으로 상하이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운 일정으로 구성된 상하이 패키지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 top](#)